

중국 윈저우(溫州)상인과 전략적 제휴방안 조사

-이문형 선임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센터)

1.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11년 10월 16일~10월 20일
- 출장 지역: 중국 온주(溫州)시
- 출장 목적
 - 지식경제부 양자사업 “중국 온주상인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수행을 위한 중국 현지 출장
 - (사)한국벤처기업협회와 중국 온주민간자본투자복무중심간의 기업 교류회 주관
 - 산업연구원과 중국 온주대학 상과대학간의 정책협의회 개최(주제 발표자 참석)

○ 출장자

- 산업연구원: 이문형 선임연구위원 1인
- (사) 한국벤처기업협회 박창교 부회장 외 2인
- 한국 기업인 7인

○ 주요 일정

날 짜	시 간	내 용	비 고
10/16 (일)	오후	인천-상해 MU 5034편(16시20분-17시 20분) 상해-온주 MU 5501편(19시 20분-20시 30분)	
10/17 (월)	오전	(개회식) 기업교류회 개회식 (교류회) 기업교류회	민간투자센터
	오후	(교류회) 기업교류회 계속	
10/18 (화)	오전	(방 문) 온주시 과기국 및 하이테크기업협회 방문	
		(참 관) 중국 온주 유망기업 참관(中光科技)	광산업 도자기 생산 첨단기술업체
	오후	(토론회) 한·중 중소기업정책 토론회 (회 견) 온주대학 조민 부총장 회견 (체 결) KOVA-온주시 대학과기원 인큐베이터 MOU 체결	온주대학 상학원 온주대학 행정동
10/19 (수)	오전	(방문) 溫州匯潤전기유한공사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
	오후	(방문) 온주시 소재 신화서점 (방문) 온주시 과기국, 온주대학 상과대학	
10/20 (목)	오전	온주-상해 MU 5578편(12시 50분- 13시 50분) 상해-김포 MU 9823편(15시 30분-18시 20분)	

2. 기업 교류회

□ 개회식

- 장소: 온주시 민간투자자본복무중심
- 일시: 2011년 10월 17일 오전 09:00-9:50분
- 주요 VIP 참석자
 - 온주시 부시장: 徐育斐
 - 북경 과기일보 사장 王志學
 - 절강성 과기청 부청장 蔡秀軍
 - 온주시 과기국 국장 徐順東
 - 한국 (사) 벤처기업협회 박창교 부회장
 -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 이문형 소장
- 한국과 중국측 기업인 약 150명

□ 주요 참여기업 리스트

○ 한국기업

기업명	성명	업종	비고
(주)에어비타	이길순	공기청정기	
(주)누가의료기	최규근	화장품	
(주)에스엔에스레볼루션	신경	모듈부품소재	
(주)아이젠글로벌	조훈식	전자제품, 무역업	
FHI Korea	송선남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글로벌심층수	노준건	해양심층수	
	김민호		

○ 중국측 주요기업

온주측기업	비고
온주 취아 환보재료 유한공사	
절강정령전기 유한공사	
절강 백특 전기 유한공사	
절강 만초 전기유한공사	
온주 내불 실업 유한공사	
절강 초달 별문 유한공사	
보일 별문 집단 유한공사	
절강 전력 변압기 유한공사	
절강 산우 천연식품 유한공사	
절강 랑시가 건강 음수설비 유한공사	
절강 천관산 주업 유한공사	
온주시 조룽 방직기계 유한공사	
온주시 환구 자동차 라이너 유한공사	
온주시 관성 자동차 부품 집단 유한공사	
절강정령전기 유한공사	
절강 백특 전기 유한공사	
절강 만초 전기유한공사	

□ 비즈니스 상담 실적

○ 기업미팅: 33회(1사 1회 계산)

○ 기업방문: 8회

한국측 기업	교류내용	비고
에어비타	미팅: 2회	
SNS 레볼루션	미팅: 13회 / 기업방문: 1회	
글로벌심층수	미팅: 2회 / 기업방문: 3회	
아이젠글로벌	미팅: 7회 / 기업방문: 1회	
FHI코리아	미팅: 6회 / 기업방문: 2회	
누가의료기(화장품부문)	미팅: 3회/ 기업방문: 1회	

※미팅: 교류회 장소에서 진행

※기업방문: 현장 방문미팅 진행

3. 산업연구원-온주대학 정책협의회

○ 한국측 주제발표(이문형)

-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 중국측 주제발표(장일력)

- 세계 온주상인 네트워크 형성연구

○ 주요 참석자

- 온주대학교 부총장 趙敏
- 온주 상과대학 교수진: 田景, 新允德, 趙建, 成泰洪 교수 등
- 온주시정부 과학기술국 金作崇, 匡連庭 부국장 등

○ 세미나 토론에서 온주대학 교수들은 한중간 산업협력에 대해서 보다 온주시가 현재 처해 있는 기업들의 자금용 현상과 기업 신용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한국에서 유사 경험이 있었는지 질의가 많았음.

- 본인(이문형)의 발표 논문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에 의한 산업분류에 대해 많은 지적 호기심을 표명하고 향후 중국 교수들도 이러한 방법론을 도입해볼 것을 시사

- OECD 산업기술 수준에 의한 분류체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

4. 주요 출장 결과

□ 온주시의 대한국 전략 전면적 협력으로 발전

- 온주시정부가 정식으로 한국과 전면적 교류할 것을 관계 부처와 관계기관에 하달
 - 2011년 9월 29일자로 孟建新 부시장 명의로 하달
 - 그동안 과기국이 담당하였던 업무를 상무국으로 전환하고 상무국 주도하에 경제신식위원회, 외사관공실, 온주대학, 과기국이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가일층 심화시킬 것을 정식 공문으로 하달
- KOVA(벤처기업협회)와 온주대학 과학기술구간 MOU 체결
 - 2010년 KOVA와 온주시 하이테크협회간 MOU와 2011년 KOVA와 온주민간투자복무중심간의 MOU에 이어 3번째 MOU
 - KOVA의 대온주시간의 전면적 교류 기반을 구축
- 2012년 상반기 중 온주정부와 온주기업의 방한 및 비즈니스 상담회 추진 예정
 - 온주시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약 50명의 투자 및 교역단을 한국에 파견키로 하고, 중국측 방문시 한국의 협조 요청
- 온주시는 향후 한국의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과 우호 도시를 체결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
 - 울산시와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에서 협력하고, 광주시와는 바이오, 광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에서 협력을 희망

□ 온주기업들의 자금난, 언론 보도만큼 심각하지는 않음

- 온주시 현장에서 공무원들과 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온주 민
역기업들의 자금난과 해외도피, 사채 고금리 문제 등 이었으나, 실제
언론에서 보도한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 현장의 인식
 - 중국정부가 통화량 발행을 억제하면서 일부 사채 금리가 금년 상
반기 연 18%까지 상승(M2 증가율 2009년 27.7%에서 2011년 3/4분
기 13%로 하락)
- 10월 3일 온자바오 총리 온주 방문을 계기로 자금난이 완화되기를
기대
 - 실제 중국정부는 10월부터 긴축금융정책을 완화하고 현지 금융기
관들의 대출 증대를 허용하기로 현지 언론 보도
- 그러나 구조적으로 민영기업들은 담보 부족과 신용평가 시스템 미흡
등으로 인해 국영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곤란하여 민영기업들의 자금
난은 당장 해결이 어려운 장기적 과제
 - 중국에서 국영기업들은 토지 보유량이 많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
에 현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용이하나 민영기업은 토지가 자가
소유가 아닌 임대차 많고, 정부의 정책 지원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나 대출이 곤란
 -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은 진출(발
전)하고 민영기업은 퇴보, 즉 국영기업이 민영기업을 흡수합병하거
나 시장에서 민영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을 의미)”이 중국 전역에서
만연